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문항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 혹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차 세계 대전에 대해 배우던 시간에 나는 투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다행히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전쟁은 없었던단다.” 투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의 말을 끊었다. “아닌데요.” 그게 투이의 첫마디였다.

“뭐가 아니라는 거지?”

“베트남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두 다 죽었대요. 군인들이 와서 그냥 죽었대요. 아이들도 다 죽었다고. 마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투이가 말했다.

“그래, 투이 말이 맞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 너희는 들어본 적 없을 거야. 투이가 더 얘기해 볼래?” 선생님은 투이가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는 것에 만족해했지만, 그 애는 반사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였다. 투이의 얼굴이 곧 울 것처럼 붉어졌기 때문이다. 그 애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투이, 더 말해봐. 우리들도 모두 알아야 하잖아.”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당시에는 그 감정의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반장 잉가가 손을 들었다.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미군만 육만 명이 죽었고 군인 아닌 베트남 사람도 이백만 명 죽었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군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죽이는 약도 뿌렸고요.” 반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투이의 작은 귀를 바라봤다.

선생님은 반장의 말이 정확하다고 칭찬하고는 미국이 베트남 전에 참전한 배경과 전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일이 미국 정부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투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렇게 아니었으리라고, 그 애를 앞에 두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을 열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 투이는 분명 교실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 것 같았다. 나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그 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투이의 마음을 조금도 짐작하지 못하겠지, 독일 애들에게 희미한 분노마저 느꼈던 기억도.

그날 저녁 우리는 투이네 집 식탁에 모여 호 아저씨가 만든 국수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열세 살짜리 여자애였다. 열한 살 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애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컸다.

[A]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

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 호 아저씨가 말을 돌렸다. 모두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멍멍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1-1. <보기>를 참고하여 화자가 ㉠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를 반장 잉가와 선생님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30점]

<보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한다. 폭력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잔혹한 이미지나 숫자로 제시될 경우 타인이 겪은 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타인을 향한 관심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알리바이가 된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보기>
유년기 기억을 회상하는 작품에서 1인칭 화자의 서술에는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이때 어린 시절의 ‘나’를 ‘경험 자아’, 어른이 되어 회상하는 ‘나’를 ‘서술 자아’라고 한다. 이런 서술에는 경험 자아의 지각과 서술 자아의 판단이 함께 드러나 있어 화자의 목소리는 이중적 울림을 갖는다. 서술 자아는 경험 자아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고 ㉠ 경험 자아의 말이나 행동을 판단하고 그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대표적인 이론에 따르면 자산 가격은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보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집값은 다달이 받을 월세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값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값은 거품으로 인하여 이론적인 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거품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찰스 킨들버거는 집값의 거품이 있기 전에 빛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집값의 결정에 빛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집이 100채 있는 세계를 가정하자. 이 세계의 집들은 완전히 동일해 같은 가격으로 팔려야 한다. 이곳에는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비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가 10만 달러라 믿는다. 반면 낙관주의자들은 이 집의 가치를 12만 5천 달러라 믿는다. 낙관주의자든 비관주의자든 그들이 생각하는 집의 가치보다 집값이 더 높지만 않으면 집을 살 의향이 있다. 집을 살 의향이 낙관주의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집을 사는 순서는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먼저이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세계에서 집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100채의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낙관주의자가 많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집값은 모두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시장에서 모든 집의 거래가 완료되는 최저 가격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낙관주의자 각각은 동일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돈을 모두 합하면 총 250만 달러가 된다고 해보자. 이 세계에서 빛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집값은 10만 달러가 되고, 낙관주의자들은 25채만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빛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자신이 가진 돈의 4배까지 빛낼 수 있다면, 집값은 12만 5천 달러로 상승하고 낙관주의자가 100채 모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을 모두 살 수 있을 정도로 낙관주의자가 충분히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낙관주의자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집값은 낙관주의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누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향이 있을까? 비관주의자들은 그럴 의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10만 달러가 되므로 돈을 빌려줘도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비관주의자는 낙관주의자의 가치 판단을 믿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비관주의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낙관주의자에 의해 집값이 올라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그렇다면 집값 상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물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낙관주의자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의 대출 없이는 낙관주의자가 무리하게 빛내서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돈을 빌려준 비관주의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낙관주의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려 할 것이고, 이는 집값을 점점 더 상승시킬 것이다. 거품이 터지고 나서 비관주의자도 손실의 일부를 감당해야 한다면 비관주의자는 대출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애당초 돈을 빌려줄 때 아무에게나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인 형태의 '일반 모기지 계약'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해야만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계약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책임 모기지 계약'이다. 책임 모기지 계약은 집값이 변하지 않거나 오르면 채무자가 내는 이자 비용 변동이 없다. 하지만 집값이 매입한 시점보다 하락할 때 집값 대비 순자산(집값에서 대출 금액을 뺀 것)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년 채무자가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일정 비율만큼 하락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하락한 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상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채무자가 매년 이전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해도 원금은 종전과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방식은 사실상 집값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책임 모기지 계약은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대신 집값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면 채권자도 이 모기지 계약을 맺을 유인은 충분하다. 만약 책임 모기지 계약을 사용한다면 ㉠ 순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모기지: 구매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년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2-1. <보기>에서 ㉠가 (가)의 주장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의 이유를 대출과 집값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140자 이내) [30점]

<보기>
어떤 경제학자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집값이 오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거품이 생겼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담보 가치가 증가하므로 단순히 비합리적인 기대에 기대어 한계대출자(예전에는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에게까지 모기지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두 도시 A와 B의 사례를 통하여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자. 두 도시 모두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등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한계대출자에게까지 모기지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A는 완전한 평야에 위치해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한 도시 팽창이 쉬워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 B는 언덕이 많거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확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이로부터 ㉡ 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보기>의 사례가 주어질 때, 일반 모기지 계약과 책임 모기지 계약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을 설명하시오. (175자 이내) [30점]

<보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순자산은 각각 8만 달러, 2만 달러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8만 달러를 빌려서 1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집값이 20% 하락하였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흔히 공정성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법이나 정책 영역에서 공정한 판단 원칙을 세우려 하다 보면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만으로는 그 공정성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공정성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여러 방식으로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공정성을 정의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집단 간에 특정 판단이 이루어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혜택이나 판정(채용 합격, 장학금 지급, 저위험군으로 분류 등)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인종이나 성별 등의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면, 이는 직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공정성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목표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규제에서는 결과 비율의 균등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 최근 논의되는 ‘공정한 인공지능’은 때로 오류율에 주목한다. 이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 분류를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정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집단은 실제로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해당 시험이 그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결과에 드러난 비율 그 자체보다는 판정 과정의 신뢰도를 강조하며, 개인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판정의 오류를 정하여 그 발생 비율의 집단 간 차이를 공정성의 지표로 삼는다.

문제는 오류율의 정의도 어떤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시험의 예를 들자면, 능력이 충분한 학생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일이 특정 집단에 유독 자주 일어날 때, 이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기준에서 (㉡)도 다른 의미의 불공정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즉 어떤 오류를 더 중요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따라 공정성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오류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오류야말로 심각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쪽 오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오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공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공정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리즘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 미국 몇몇 주의 사법 기관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COMPAS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전과 기록 및 그 외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범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석 등의 판단에 사용해 온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및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추출한 137개 변수를 활용하여 재범 위험 점수를 산출한다.

2016년 미국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COMPAS가 사법 목적으로 활용한 데이터와 판정 결과 및 피의자의 실제 재범 여부를 분석하여, 이 자동 판단 시스템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흑인 피의자가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고위험으로 판정된 경우가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난다는 점, ㉣흑인이 백인에 비해 높은 비율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보석과 같은 사법 절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3-1. <보기>가 소개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을 비판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보기>

어떤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동등한 자원과 혜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원칙을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장학금은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 없이 성적만을 근거로 지급해야 한다.

3-2.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50자 이내) [10점]

3-3. ㉢과 ㉣의 비판이 각각 공정성 개념 중 어느 것을 근거로 하는지 (가)와 (나)의 표현을 활용해서 서술하시오. (120자 이내) [2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1인당 국민소득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으로서 국가의 빈곤 정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빈곤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각종 빈곤 지표를 통해 빈곤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빈곤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률’이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국민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빈곤갭률’은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서 빈곤갭이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여기서 빈곤선은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한다. 빈곤갭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측정한다.

$$\text{빈곤갭률}(\%) = \frac{\text{빈곤선} - \text{빈곤층 평균소득}}{\text{빈곤선}} \times 100$$

(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한 사회의 전체 소득수준이 증가하여 평균소득도 올라간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 증가의 영향을 덜 받는 중위소득은 통계상 변화하지 않는다. 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되면 주거비·교육비 등 필수생활비가 상승하고, 하위층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여 빈곤층의 생활 수준이 악화된다. 그 결과 상대적 빈곤율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빈곤층의 실질적 어려움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빈곤갭의 확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 지표만으로 한 사회의 빈곤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두 국가의 가상적인 소득 분위와 빈곤 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각 분위는 동일한 수의 가구로 구성되며, 각 분위 내 가구의 소득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1> (단위: 만 원)

소득분위	A국	B국
1분위	90	100
2분위	180	140
3분위	250	300
4분위	400	350
5분위	1,000	700

* 소득분위: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순위를 매겨 구간으로 나눈 등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지 표	A국	B국
상대적 빈곤율	(㉠) %	(㉡) %
빈곤갭률	(㉢) %	(㉣) %

(다) 현대 사회에서 빈곤은 단순히 소득 결핍의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결핍된 상태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소득의 일부 지원만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역량’이라고 하며, 효과적인 빈곤정책은 소득 이전뿐 아니라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4-1. (나)의 <표 2> ㉠~㉣에 들어갈 값을 쓰시오. [30점]

4-2. (나)의 A국은 최근 급여 인상과 더불어 교육·의료·고용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빈곤 개선 정책을 도입하였다. <보기>는 1분위 계층의 정책 시행 전·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 ‘빈곤갭률’, ‘역량’의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서술하시오. (단,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다.) (140자 이내) [30점]

<보기>

구 분	정책 시행 전	정책 시행 후
소 득	90만 원	120만 원
교육서비스 이용률	40%	60%
의료서비스 이용률	55%	65%
취업률	25%	40%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가진 믿음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의 '증언'을 통해 획득된 것이다. 증언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할까? 다음 추론을 고려해보자.

한 행인이 건물 승강기가 고장 났다고 일러줬다.
따라서 건물 승강기는 고장 났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둘을 매개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 '신중론'에 따르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즉 그 행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의 증언을 믿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인식 주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행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의 경우 인식 주체가 증언자에 대해 이런 증거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 '독단론'은 증언자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 없이도 증언은 그 자체로 해당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지각 경험에 기반한 믿음을 생각해보자. 내 앞에 빨간 토마토가 있는 것을 본다면, 내 시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없이도 그 토마토가 빨강다고 믿는 것이 정당화된다. 만약 비정상적인 조명 등의 이유로 경험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경험이 부여하는 정당화는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한 경험은 그 자체로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령 행인이 승강기를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고 볼 증거가 있다면, 행인의 증언은 정당화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그런 증거가 없는 한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그의 말을 믿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증언과 믿음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독단론자는 그것을 인식 주체가 가진 증거가 아니라, 외재적인 조건에서 찾고자 한다. 예컨대 지각적 믿음의 경우 인간의 지각 기관이 주변 환경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언의 정당화 효력을 뒷받침하는 외재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 말이든 글이든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은 일정한 사회적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규범이 대표적이다. 대화자들은 상대방이 이런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로는 이런 규범을 어길 때 받게 될 모종의 불이익 때문에 이를 따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규범을 따르는 유일한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규범이 모든 발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장'이나 '단언'의 경우에는 지켜져야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든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그 성격이 모호한 발언의 경우 규범의 적용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규범의 적용을 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증언의 경우 "진실을 말하라"의 규범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증언은 일반적으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허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소셜미디어상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리트윗'이라 불리는,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은 리트윗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문제는 리트윗의 본성상 그 의도가 종종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자신도 같은 주장을 한다는 뜻인가? 그것이 참이길 바란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소식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윗을 전달받은 사람은 때때로 그것을 일상적인 오프라인의 증언과 같이 취급하여 즉각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한 유력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소셜미디어에서 리트윗한 후 기자에게 추궁당하자, "그건 단순히 리트윗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은 ㉢ 일상적인 증언에서와는 달리 리트윗 같은 형태의 증언에서는 "진실을 말하라"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5-1. ㉢의 관점에서 <보기>의 논증을 비판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보기>

내 앞에 백색 시험지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로부터 내 앞에 시험지가 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정당화될까? 그렇지 않다. 나는 잠이 들었지만 시험지를 앞에 두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경험이 내 앞에 시험지가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2. ㉠과 ㉡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견해가 각각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150자 이내) [20점]

5-3. ㉢의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나)와 (다)를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100자 이내) [20점]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주의는 전통사회의 세습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 이념으로 등장했다. 근대를 열었던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나타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덕성과 재능 이외의 기준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지위·일자리에 지원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 이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사상에서 잘 나타난다. 토머스 제퍼슨은 1813년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인간 사이에는 ㉠ ‘자연적 귀족제’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덕성과 재능입니다. … 또 다른 형태로 ㉡ ‘인위적 귀족제’가 있는데, 이는 덕성이나 재능 없이 오로지 부(富)와 혈통에 기반합니다. 나는 자연적 귀족을 사회의 지도·신탁·통치에 있어 자연이 준 가장 귀한 선물로 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사회를 운영할 만큼의 덕성과 지혜를 함께 부여받았음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정부형태란, 이런 자연적 귀족들을 순수하게 선발해 통치에 참여시키는 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위적 귀족은 해로운 요소이므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신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즉 미국에서는 출생과 지위라는 우연한 여건과 무관하게 본래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질서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클 영에 따르면 능력은 지능과 노력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는 이러한 믿음이 21세기 지배계층의 기본 신념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신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배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나) A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기술과 천연자원이 부족했던 A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었으며 A국은 과감한 교육투자와 적극적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했다. 고도성장 시기 A국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서 기능했다. 많은 시민이 학력을 매개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며, 교육은 균형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능력주의 신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축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우수한 교육·고용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기회의 격차에 직면했다. 이로써 A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 내 상층과 하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된 다중 격차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공고화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강화되면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급증으로 이어졌다. 사교육 불평등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 대학 진학을 격차의 심화로 이어졌다.

최근 A국의 정부 기관이 제시한 보고서는 이 현실을 잘 나타낸다. <표>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 학생 간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 경제력의 효과로 추정되었다.

<표> A국 고3 학생의 가구소득 분위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

소득 분위	상위권 대학 진학률
1분위	1.1%
2분위	1.3%
3분위	2.5%
4분위	4.0%
5분위	5.9%

* 소득분위: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순위를 매겨 구간으로 나눈 등급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6-1. ㉠과 ㉡ 중 <표>에 나타나는 A국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개념을 고르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80자 이내) [10점]

6-2. <보기>를 바탕으로 ㉢을 비판하시오. (130자 이내) [20점]

<보기>

A국에서 소득 불평등과 청소년의 뇌 구조 및 뇌 기능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8,000명 이상의 9~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소득 불평등과 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다양한 변수(부모 교육 수준, 가구소득 등)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저소득층에서 광범위한 뇌 영역의 피질 두께와 표면적의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여러 뇌 네트워크 간 기능적 연결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소득 불평등이 청소년의 신경 발달 및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고유한 사회 수준의 요인임을 보여준다.

6-3.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가 A국의 기회 불평등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보기>

A국 국회는 변화된 교육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 대학 입시에서 지역 비례 할당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대학 합격자 중 특정 지역 비율을 전국 고3 학생 중 해당 지역 학생 비율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방식이다.